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8호 【루계 제23395호】 주체100(2011)년 3월 19일 (토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10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약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는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최근 함경남도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체의 자원과 기술, 힘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흥남제련소, 함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짧은 기간에 건설과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치하하시고 새 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중국의 《환구시보》와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신화망, 동북보도망,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10일과 11일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10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운산공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하였다.

라오스통신과 브라질공산당 인터네트홈페지 《베르멜유》는 9일과 1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3.8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조로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약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는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이란과 체스꼬에서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13일부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스화공정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이 완공되면 조선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적인 비료생산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될뿐아니라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업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흥남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질합금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함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질좋은 옷감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도 11일 우와 같은 내용을 올렸다.

본사기자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된다

태양절을 맞으며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주체100(2011)년 4월 중순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기간 각 지방들에서는 김일성화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참관사업이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들로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펼치게 될 이번 축전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계기로 된다.

태양의 꽃축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도서 《자주위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최근 사회과학출판사에서는 도서 《자주위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를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여난 예지로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신 희세의 철학가이시며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는데 대하여 깊이있게 서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상리론적업적입니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쌓으신 가장 위대한 공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새로운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것이다.

도서 《자주위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에서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괄하였다. 다시말하여 그 창시로부터 시작하여 심화발전, 특징, 근본원리, 총대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진행해나가는 혁명리론과 령도방법,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서술하였다.

도서는 서장과 2개의 편, 종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서장에서는 자주시대 지도사상의 창시는 자주위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라는데 대하여서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서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이 창시되고 심화발전될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사상이며 선군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1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정립하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원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힌 원리, 세계에 대한 견해와 그 개조변혁의 일반적방법론을 해명한 원리를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도서에서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와 함께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데 대하여서와 사회적운동이 자주적운동, 창조적운동, 의식적운동이라는데 대하여 밝히였으며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제2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0년대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선행한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천명하시고 그를 혁명활동전과정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이 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혁명의 원리와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들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결부하여 론증하였다.

이와 함께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할데 대한 리론,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 인민들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합법칙적로정을 거쳐 계급해방의 력사적과업을 이룩할데 대한 리론 그리고 민족적예속과 계급적착취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게 하는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그 의의에 대하여 밝히였다.

또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히고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서술하였다.

도서는 종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 자주위업완성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현실과 결부하여 분석론증하였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누리에 빛나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자주성을 핵으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총대에 의거하여 자주성실현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도서 《자주위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드팀없는 신조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천만군민을 고무추동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교과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더욱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로 빛나고 자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높이 떨치자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에로!

1계렬공사 마감단계, 시운전 련이어 진행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에서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가스화공정 1계렬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은 드넓은 부지에 웅장한 구조물들과 집채같은 대형설비들, 장치물들이 가득 들어차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그 면모가 일신되였다.

룡성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들어낸 압축기들의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대형산소분리기 종합시운전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건조분쇄공정의 부분시운전도 이미 끝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 39일만에 또다시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을 찾아주시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력갱생의 창조물이 일떠서고 승리의 개가를 울릴 시각을 눈앞에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견결한 투사들이며 열렬한 애국자들인 그들의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으며 조업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지금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분초를 쪼개가며 불굴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설비조립과 장치물제작, 설치를 결속하며 부분별시운전에 이어 전반적인 시운전을 한시바삐 보장하기 위하여 전투조직과 지휘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설비, 부속품, 장치물보장사업과 시공조직사업을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가스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내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일군들과 함께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현지에 찾아오시여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페열보이라설비조립과 부분시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일 계획을 최고 1.5배이상씩 수행하고있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와 화학건설련합기업소, 함흥산업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흥남가스화는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공사인것만큼 모든 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가스화공정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맡은 대상들의 설비제작과 조립을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부분시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스흡착공정의 설비, 장치물조립과 대형산소분리기의 총시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대형기계설비들을 성과적으로 만들어 공사장에 련속 보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기관들과 도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 함흥시와 각 구역들에서 공사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있다.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우리 당의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정해주시고 흥남가스화공정건설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위훈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완공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선군생활문화확립의 앞장에

◇ 전국녀맹선군문화열성자회의에서 발표된 호소문은 지금도 온 나라 녀성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녀성들을 선군시대의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일해나가겠다.》, 《일터와 가정에서 선군생활문화의 향기를 뿜어주는 아름다운 꽃이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세상에는 조선녀성들처럼 고상하고 근면하고 깨끗한 일솜씨와 품성을 지닌 녀성들은 없다. 거리와 마을, 자기의 일터를 선군시대 맛이 나게 꾸리는데서도 언제나 앞장서고 허례허식과 사치를 모르며 생활의 청신한 봄비가 되여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녀성들이다. 이런 녀성들이 있기에 온 사회에 약동하는 건전한 사회주의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는것이다.

◇ 선군생활문화확립의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치려는것, 이것이 우리 녀성들의 드높은 결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으며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마전 3.8국제부녀절을 맞는 녀성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고있는 우리의 전체 녀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축복을 받은 우리 시대 녀성들은 마땅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선군생활문화의 창조자,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원예사와 같이 가정과 일터마다에 민족의 향취와 풍만한 정서가 넘쳐나게 하고 시부모를 존경하며 남편들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심장에 불을 지펴주는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며느리, 귀중한 안해들이 많을 때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 집집마다에서 창조의 동음,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는것이다.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사명감을 다해나가며 사회주의생활문화를 활짝 꽃피우는 여기에 선군시대 녀성들의 더없는 긍지와 보람이 있다.

◇ 녀성들은 선군생활문화를 확립하고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한다.

녀성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화만사성》의 뜻을 받들어 가정의 화목을 꽃피우며 알뜰하고 깐진 살림살이기풍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자녀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 자식들모두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 창조와 건설의 영웅으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훌륭한 사상정신적, 문화도덕적풍모를 갖춘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석탄증산투쟁에 박차를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석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2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로 이달에도 석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1.4분기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하여 진군속도를 높이고있는 탄부들속에 들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막장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갱막장으로 들어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모두가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막장마다에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남덕탄광의 일군들은 생산조건이 불리하고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막장의 실태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기술자들과 오랜 경험을 가지고있는 탄부들이 서로 합심하여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석탄생산의 앞장에는 2갱, 3갱, 9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있다. 이들은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매일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풍곡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3월에 들어와서도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이곳 탄광 1갱의 일군들은 운반능력이 훨씬 높아진 유리한 조건에 맞게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앞선 채탄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늘이도록 하고있다.

채탄1중대의 탄부들은 탄밭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새로운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채취률을 훨씬 높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인포탄광 1갱, 3갱, 5갱과 회안탄광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석탄생산을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탄광들의 좋은 경험과 혁신적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온 탄전이 석탄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정 론

승 리 의 열 쇠 를 틀 어 쥐 자

조선은 승리의 길을 가고있다.

선군의 총대로 세기의 상상봉에 오른 조선은 또 하나의 위력한 보검을 틀어쥐였다. 우리는 오늘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비약의 《산울림》을 울리고있다.

과학기술, 이것이 우리가 탄 천리마이고 우리가 찾아쥔 만능의 열쇠이며 우리가 가는 승리의 길이다.

축적하고 다져온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폭발할 때는 왔다.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승리도 말하고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의 압살공세를 짓부시며 세계를 앞질러 대담하게 솟구쳐올라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열풍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단숨에 점령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의 드높은 자신심이다.

아직 세계가 다 보지 못한 이 거대한 힘의 분출은 김일성민족의 슬기와 창조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것이다.

1

이 동무들이야말로 견결한 투사들이고 열렬한 애국자들입니다!

얼마전 흥남가스화공정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이곳 로동계급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안겨주신 이 고귀한 칭호가 온 나라를 또다시 격정에 휩싸이게 하고있다.

1년반사이에 설계도면에서만 보았던 어마어마한 현대적인 공업구조물들을 일떠세운것만도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흥남의 사변을 놓고 대단한 충격과 형언할수 없는 감동을 받아안게 되는것은 남을 쳐다보며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최신식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공격정신, 바로 그 비상한 창조력이다.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을 믿고 그 어떤 최첨단도 대담하게 돌파해나가는 사람이 오늘의 투사이고 진짜배기충신이며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너무 기쁘고 만족하시여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가 나붙어있는 그 장쾌한 자력갱생의 창조물앞에서 환히 웃으시며 남기신 뜻깊은 사진은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선의 속도, 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력사의 화폭이다.

강선의 대고조봉화와 함께 련이어 변을 낳으며 상승하고 또 상승해온 우리 조국은 지금 더 높은 비약의 상상봉을 내다보며 신심있게 솟구쳐오르고있다. 이룩한 변혁도 가슴벅차지만 오늘도 시시각각 창조에서 창조에로 거침없이 돌진하는 이 기세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놓고있다.

년초에는 남포유리병공장에서 포장용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였다는 새 소식이 전해지고 최근에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피형전환기술에서의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오늘은 또 동해의 대공업기지에서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여는 승리의 개가가 울려퍼졌다.

조선의 이 위력은 과연 무엇을 분화구로 하여 터지는것인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은 해당 시기마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현시기 우리 당은 과학기술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

전진하는 대오에 총공격명령을 내리시듯, 작전도우에 승리의 화살표를 그으시듯 그이께서 확신에 넘쳐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가는 번영의 길이 밝혀져있고 조선이 틀어쥔 필승의 무기가 번뜩인다.

전인미답의 창조의 력사를 이끌고 21세기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우리 당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전 로정에는 과학중시사상이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다.

그러나 오늘 과학기술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의지에는 보다 중대한 요구가 있다.

과학을 중심에! 과학발전에 총력을! 과학기술로 만사를!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함께 과학기술을 조국번영의 보검으로 높이 추켜들고 승리의 길을 열어가는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웨침을 심장으로 듣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힘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전반적련쇄의 일대 변혁을 창조해온 우리 당은 오늘도 모든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장 적중한 시기에 다시금 가장 정확한 결심을 내렸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급격히 높아진 오늘의 세계에서 누구는 과학을 생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누구는 경제적독점과 군사적패권의 무기로 삼지만 우리는 과학을 놓고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의 승리를 확신한다. 과학으로 주체사상의 승리를 말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선언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크지 않은 주체철용광로에서 쏟아지는 쇠물을 보시며 그처럼 기뻐하신것이고 16년만에 다시 쏟아지는 비날론폭포앞에서 희열을 금치 못하시며 비날론으로 만든 옷을 자신께서 제일먼저 입어보겠다고 하셨던가.

콕스의 멍에를 벗어던지게 된 기쁨, 우리의 과학기술로 오늘은 물론 래일도 영원히 주체의 붉은 쇠물, 조선의 비날론을 쾅쾅 뽑을수 있게 된 커다란 환희에서가 아닌가.

김철의 그 쇠물, 2.8의 그 비날론이야말로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현실로 증명해보인 사상의 철, 신념의 비날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고조로 들끓는 북방의 한 기업소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생산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히 기술문제가 아니라 자주성문제이라고 말씀하신것처럼 지금은 힘이 없고 무기가 없어서만이 망국노가 아니다. 어제는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야 한다는 피의 교훈으로 노예의 설음을 말했다면 과학기술패권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과학기술의 약자가 되면 자기의 존엄도 지킬수 없다.

오늘의 시대에 주체사상의 조국은 곧 과학기술강국이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을 중심고리로 내세운 우리 당의 결심에는 주체사상으로 과학발전을 추동하는 동시에 과학으로 주체사상을 빛내이려는 철의 의지가 비껴있다.

우리 인민은 리상이 높은 인민이며 언제나 단번도약으로 세월을 주름잡아온 인민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 제일 우수한것, 제일 문명한것이 이 땅에 가득 넘쳐야 하며 그것도 한시바삐 이룩해놓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혁명세계이고 우리 인민의 불타는 포부이다.

한초가 새로운 우리에게 단번도약의 열쇠는 무엇인가.

화약처럼 다져진 천만군민의 정신력에 과학기술이라는 불만 달면 몇천만배의 속도를 낼수 있다. 과학기술의 고삐만 틀어쥐면 룡마는 달리게 되여있고 과학기술의 분화구만 열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 모든 고리, 모든 잠재력이 일시에 전면적대앙양을 안아올수 있다.

혜성마냥 련속 출현한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의 대성공,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간 신창의 기적과 같은 충격적인 변들, 고속화, 정밀화, 지능화된 고성능공작기계들이 줄지어나오고있는 조국의 전변은 과연 무엇으로 이룩된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생물학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해가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을 높이 치하하시며 마치 요술사들 같다고, 요술의 환상세계에 온것 같다고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이 시각도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의 슬기로운 두뇌에서 꿈에서나 그려보던 리상이 현실로 다가서고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우리와 미제와의 결사전은 지금 과학전선에서도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다.

각종 제재항목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얽어매고 여러가지 부당한 명목으로 봉쇄와 압살의 그물망을 몇천만겹으로 조이는 미제의 《검은 손》에 우리 조국은 과연 무엇으로 반격을 가하고있는가.

우리 식의 과학기술공격전이다.

미제가 첨단을 휘두르면 우리 식의 최첨단으로 답새기는 공격전의 불바람속에서 선군의 총대가 더욱 서리발치고 강선의 초고전력전기로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룡성의 선군주철공장이며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현대화의 기적도 태여났다. 날로 높이 울리는 첨단돌파의 새 소식, 핵심기초기술의 성과적개발이야말로 미제의 전략에 파렬구를 내는 멸적의 포탄이다.

우리는 과학으로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위업의 승리를 마중가고있으며 과학으로 보화의 문을 활짝 열고 번영의 열매를 따들이고있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응축된 화산이 드디여 분화구를 터친듯 도처에서 과학기술이라는 무서운 용암이 이글거리며 전례없던 기적을 한꺼번에 분출시키고있는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얼마나 많은 전에 없던 성과들이 이룩되는가.

나노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설비와 재료들이 개발되는 속에 전국적범위에서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가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여기에 화답하여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한 선군청년총동원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전국각지의 청년들이 첨단돌파의 분화구를 여기저기서 터치고있다.

조선은 이렇게 비약하고있으며 이렇게 사회주의힘을 단단히 보여주고있다.

2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질풍같이 내달릴 때가 되였다.

오랜 인류력사, 나라와 민족들의 력사에는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 계기들이 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때가 도래하였다.

시대의 흐름과 우리의 준비가 일치하였다.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전도유망하고 무궁무진한 힘을 지닌 과학기술력량이 조국번영의 총진군에 과감히 나섰다.

룡남산에 빛발치는 위대한 령장의 선언이 시대를 울린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때로는 달리는 야전차에서, 때로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붓을 달려 한자 또 한자 몸소 쓰신 불멸의 이 친필에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과 시대의 절절한 요구가 력력히 비껴있다.

50여년전 이 사연깊은 언덕에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우리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결승선이 눈앞에 펼쳐진 오늘 다시금 여기에 새겨주신 이 명제에는 참으로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과학탐구의 위대한 지침이 있고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하라는 혁명의 요구가 울리고있으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우리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는 하늘같은 기대가 메아리치고있는 이 불멸의 글발이야말로 과학기술혁명의 총서와 같고 강성대국건설시대의 또 하나의 대강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선군령장이실뿐아니라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중시사상으로 혁명을 이끌어가시는 현세기의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가이시다.

우리 장군님의 과학중시에는 한없이 숭고한 세계가 있다.

김일성조선은 마땅히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여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 우리 인민은 남들이 부러워하게 제일 문명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민족적자존심, 강대하고 눈부시게 번영하는 조국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

정녕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민족을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셨기에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승리의 무기로 틀어쥐신것이였으며 조국과 후손만대의 운명을 책임진 그 사명이 불같은것이여서 과학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과학기술발전의 위대한 개척자, 선구자가 되신것이다.

그이의 혁명령도사는 주체과학의 끝없는 미래를 펼쳐온 애국의 력사, 창조의 력사였다.

피눈물의 바다를 헤치시며 걸으신 선군의 그 길이 조국수호의 길만이였던가.

그이께서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눈비내려도 가시고 해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이어가시던 그 길은 최첨단돌파의 초행길이였다. 과학발전의 가장 리상적인 요람인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길이였다.

그이의 전선길은 언제나 현대화의 불길 드높은 공장, 기업소들과 과학연구기지들에로 이어졌고 바로 그 나날에 최상급의 전자도서관도 태여나고 수재양성기지와 첨단기술개발단위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우리 장군님 아니시라면 그 누가 공장은 멎어도 과학기술발전은 멈출수 없다는 의지를 안고 나라의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자금을 최첨단기술의 개발에 돌릴수 있겠는가. 장군님 아니시라면 과연 누가 일군들을 계몽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새시대 기술혁명의 거창한 위업을 개척할수 있었겠는가.

전화의 그날 과학원을 창립해주시고 전선의 대학생들을 교정으로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그대로 고난의 행군의 첫 시기 사회에 대한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부터 찾아주시고 과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줄데 대한 명령까지 하달하신 다심한 은정은 얼마나 뜨거운것이며 아직은 작은 싹에 불과한 연구성과도 크게 보시며 힘을 내라고, 당은 동무들을 믿는다고 크나큰 고무를 안겨주신 스승의 손길은 또 얼마나 따뜻한것이였던가.

과학발전의 초행길은 뜨거운 애국의 심장으로 헤쳐가는 고도의 창조이며 끝없는 개척이다.

과학에 대한 깊은 조예와 시대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 현대정치가로서의 특출한 판단력과 뛰여난 안목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과학발전의 옳바른 전략을 세울수 있고 끝까지 이끌수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모방국이 아니라 과학기술창조국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세계발전추세와 우리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의 중점대상도 몸소 선정해주시고 일단 앞선 기술을 들여온 다음에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욱 갱신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기술연구개발을 계속 특색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장군님,

나라의 경제구조를 첨단공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건하며 에네르기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도록 주공방향을 선택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는 얼마나 선견지명한것이고 연구, 개발, 생산이 하나로 결합된 첨단공업창설의 거점들을 마련해주신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은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을 전하는것인가.

이제는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을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최근에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가 태여난 자강땅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온 나라에 비약의 더 큰 나래를 달아주시였으니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우리 장군님의 과학령도사를 어찌 한두편의 글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남들이 걸어온 수백년력사를 뛰여넘어 인류과학발전사가 알지 못하는 새 경지를 개척해오신 절세의 위인들의 성스러운 력사속에서 조선은 이미 승리의 오늘을 내다보았고 미래에로 나갈 거대한 힘을 키웠다.

기초는 든든하고 로선은 정확하며 길은 활짝 열려져있다.

지금 최후승리의 작전도를 그려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성, 특출한 실력에 대한 확신이 굳게 자리잡고있으며 새 기술의 수요자로서뿐아니라 개발자, 창조자로 일약 비약한 공장, 기업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있다.

한두해도 아닌 장장 수십년세월 품을 들이고 정을 기울여 키우고 이끌어오신 과학자들이기에, 그처럼 값비싼 투쟁속에 일떠세운것이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있는 모든 과학기술적위력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계시며 바로 그래서 자신을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계시는것이다.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정치가를 모신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 피어린 승리의 력사를 통하여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춘 조선이야말로 과학기술로 변을 낳고 그것으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자신만만한 강국이다.

3

온 나라에 과학기술대선풍을 일으키자.

과학에 대한 당의 요구, 조국의 기대가 높아졌다.

과학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에 전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세계의 문명을 따라앞서야 한다는 당과 혁명의 요구는 절박하다.

전당, 전국, 전민이 과학기술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그가 누구든 진정으로 사회주의생활을 사랑한다면, 강성대국락원을 간절히 바란다면 과학기술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과학기술로 공민의 량심을 말하며 과학기술로 수령결사옹위를 말하라.

과학기술이 그대로 우리 생활의 공기가 되고 우리 발전의 무기로 되는 오늘 이것은 결코 과학기술인재들의 몫으로만 될수 없다.

당일군도 과학을 사랑하는 당일군이 되고 행정일군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행정일군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의 가슴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는 포부와 열정으로 끓어번져야 하고 우리의 붓대도 온 나라를 과학기술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부르는 나팔이 되여야 하며 이 시대 어머니들의 소원도 자식들을 리승기, 계응상과 같은 인재를 키우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아직은 세상이 모르는 발전소건설공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우리의 군인들의 정신과 창조본때로만 일한다면,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사》라는 새로운 칭호를 안겨주신 일군처럼 사고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기술로써 조국을 받들어올릴수 있다.

2012년의 달력을 번질 시각이 눈앞에 박두하고있다. 승리가 지척에 다가온 결정적인 이 시각 조국은 과연 누구들을 믿음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있으며 누구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있는가.

과학기술인재, 바로 이들이다.

전화의 그날에 원쑤의 화점에 뛰여들어 돌격로를 열어제낀 용사를 찾았듯이 당과 조국이 과학자, 그대들을 병사처럼 바라보고있다.

오늘의 생산돌격투쟁은 하나의 결사전이며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최전선병사와 같다.

그대들이 리수복영웅의 최후의 열다섯발자국에 자신을 세워보고 길영조영웅의 최후의 25초에 심장을 얹고 살 때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부흥의 거대한 밑천은 단번에 억대의 재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집집마다 쌀독은 넘쳐나고 불밝은 창가마다에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흐를것이다.

최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생물공학제품의 개발과 피형전환기술에서의 성과,

그것은 결코 수자와 기호, 공식의 결합체만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 바치는 과학자의 심장이고 량심이며 불같은 헌신이다.

하루빨리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를 기다리는 어머니조국앞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대답해나서야 하겠기에 생물공학기술의 개발자들은 관례를 따르면 몇년이 더 걸려야 하였을 실험을 자신들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댐으로써 최종실험의 돌파구를 열수 있었다.

그들가운데는 한가정의 안해이고 어머니인 녀성과학자도 있었다.

세상에 모성애만큼 강한것이 없다지만 그 모성애를 초월하는 가장 고결한 사랑을 조국과 인민에게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런 훌륭한 과학자들의 헌신에 의하여 미지의 과학세계도 마침내 자기의 비밀을 드러낼수 있었던것이다.

생전에 우리 수령님께 복구건설은 념려마시라고 절절히 말씀올린 락원의 신포향을 아는 새 세대 과학자라면, 수령님 가시는 길에 애국충정의 비단필을 펼쳐드린 태성할머니의 정신세계를 배운 이 나라 과학자라면 《장군님, 경제강국건설의 최전선은 우리가 맡겠습니다.》라는 신념을 안고 투쟁해나가야 한다.

어제날에는 과학자라면 연구소와 아늑한 실험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생산의 직접적인 참전자, 척후병이 되고 증산의 원동기가 되여야 한다. 우리의 공업을 달리는 기관차에 비한다면 누구는 나사가, 누구는 베아링이, 어느 연구소는 바퀴가 되고 어느 연구집단은 레루가 될 때 조국은 더 큰 비약의 나래를 펴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것이다.

과학자들의 지식과 기술은 결코 자기 노력의 열매만이 아니다. 언땅에 배를 대고 그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준 초소의 병사들의 복무의 세월이 깃들어있고 땀흘리며 전야를 가꾼 우리 협동농민들과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기대를 돌린 우리 로동계급의 희생의 대가가 스며있다.

인민이 바친 그 땀, 그 뜨거운 마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해야 한다.

선군시대의 과학자라면 누구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발명가, 과학영웅이 되고 조국땅 어디서나 찾는 최첨단돌파전의 《홍길동》이가 되고 인민이 사랑하는 산울림의 주인공이 되자.

일군이 천리마를 타야 과학전선이 활기를 띠고 이 시대의 피가 더워지며 전진의 박동이 높아진다.

비록 자그마한 공장, 기업소일군이라 하더라도 자기 단위를 경쟁력이 있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인 결심과 구상을 가지고 옳바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식의 생산제일주의사고방식을 과학기술을 만능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확고히 전환할 때 증산의 동음도 높아지고 현대화의 발구름소리도 높아진다.

과학기술을 홀시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차단봉》이며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락후한 관점이고 자포자기이다. 새 기술을 외면하는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의 투쟁에 일군들이 앞장서야 한다.

자연부원은 두었다가 후대들도 쓸수 있지만 인재는 제때에 찾아내여 쓰지 못하면 빛을 잃은 보석과 같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에서 인재를 적극 찾아내여 적재적소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게 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발언권을 높여주고 그들이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내세워주며 최대의 과학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과학자들의 참다운 동행자, 방조자가 되여야 한다.

온 나라에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우고 어디서나 자기 분야의 높은 지식과 기술, 기능을 소유하기 위한 전민학습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준마도 박차를 가해야 천리를 질풍쳐 달릴수 있다.

우리의 대진군룡마에 과학기술의 박차를 가하고 또 가하여 강성대국승리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의 영광을 만대에 떨치자.

위대한 장군님의 조선, 과학기술강국의 본때를 온 세계에 보여주자.

정 춘 희, 박 옥 경

주체공업의 위력떨치며 우리 식 CNC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간다. —운산공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원림, 산림조성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밀고나가며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선경도시, 선경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나서는 문제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지금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는 얼마전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김경준, 국장 서현호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이번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산림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부상: 옳은 말이다. 봄철은 나무심기에서 중요한 계절이다. 이때 나무를 많이 심어야 사름률을 높일수 있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금 산림부문앞에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온 나라에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지게 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짧은 기간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면 리용가치가 크고 빨리 자라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산들과 거리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땔나무림조성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푸른 숲은 양묘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산림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생산에 중심을 두고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 군들에 있는 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아야 하며 특히는 각 도마다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양묘장들을 훌륭히 꾸려야 한다. 나무모를 생산하는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몇해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여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키우기에서 앞선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각지 양묘장들에서 가지삽목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비롯하여 앞선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회전식분무장치를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나무모밭들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종자싹틔우기,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나무심기를 수종별에 따라 기술적요구대로 하며 갓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담당림을 맡겨주고 그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 자연보호구들을 잘 꾸리고 산불방지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 사업을 위해 성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작전을 하고있다.

기자: 도로건설과 기술개건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국장: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전국각지에서는 중요도로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나라의 전반적인 도로들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도로건설에서 앞선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고속도로, 관광도로들에 대한 보수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도로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가로수조성에 힘을 넣으며 도로표식물들을 문화성있게 세워야 한다.

기자: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강하천관리사업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국장: 올해 강하천관리사업은 큰물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한결같이 떨쳐나 강하천들의 바닥을 정리하고 제방을 든든히 보수하여야 한다.

최근년간 큰물피해로 강바닥이 높아졌다. 이미 보통강에서는 바닥정리사업이 시작되였다. 수도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흐르는 보다 아름다운 보통강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의해 마련된 여러척의 준첩선들이 바닥파기를 하고있다.

중소하천정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하천제방들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것과 함께 타래붓꽃을 많이 심어야 한다. 또한 호안림조성사업을 적극 벌려 강기슭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성에서는 이러한 대상들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살림집건설과 도, 시, 군소재지꾸리기 등 국토환경보호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해야 할 일은 많다. 하지만 2012년을 향하여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기세드높이 전진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적지적수의 원칙을 철저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에서 적지적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심기에서 적지적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산림을 전망성있게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해당 지대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지대별, 수종별특성에 맞게 나무를 심어야 사름률을 높여 짧은 기간에 조국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수 있다.

적지적수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토양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수종선택을 하고 나무를 심는것이다. 수종에 따라 그 생물학적특성이 다르며 땅에 대한 요구성도 다르다. 그러므로 토양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야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다.

척박한 땅에는 아카시아나무를 심는것이 좋다.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으면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도 좋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데도 좋다. 특히 아카시아나무는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므로 땔감문제와 집짐승먹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해당 지역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한다.

봄철에는 가물이 시작되고 땅이 녹는 정도가 해비침률에 따라 서로 다르다. 나무를 심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기 지역의 기후조건을 잘 타산하여 적기를 바로 정하고 땅이 먼저 녹는 남쪽경사면에서부터 나무를 심어야 한다.

주변환경에 어울리면서도 대상의 성격에 맞게 나무를 심는것이 중요하다. 수종이 좋은 나무라고 하여 아무런 고려도 없이 망탕 심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주변의 풍치를 돋구면서도 경제적으로 크게 덕을 볼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도로의 성격과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수삼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좋은 수종의 나무를 선택하여 심도록 하여야 한다. 마을가까이에 있는 야산들과 농촌살림집주변에는 과일나무를 많이 심으며 산기슭같은데는 밤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나무들이 잘 자라고 땅이 산성화되는것을 막을수 있게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잘 배합하여 심어야 한다.

나무심기는 넓은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것만큼 산림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문 일군들은 나무심기가 시작되기 전에 현지를 밟으면서 그에 맞는 수종을 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나무 한그루한그루를 정성을 담아 심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잘하여야 한다.

회전식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

회전식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은 야외에서 영양단지 또는 삽목방법으로 생산하는 나무모들에 온도와 빛, 수분 등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어 적은 면적에서 나무모를 집약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이다.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종자와 토지, 로력 등을 줄일수 있으며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고 빨리 키워낼수 있다.

회전식분무장치의 구조는 분무관과 노즐, 전동기, 물탕크로 되여있다. 회전식분무장치를 리용하자면 원형재배장이 있어야 한다. 삽목에 의한 방법으로 나무모를 생산하는 경우 원형재배장의 배수로는 깊이를 수십cm정도로 파고 물이 잘 빠지게 돌을 채우는 방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재배장의 바닥에는 자갈을 깔고 수평을 맞춘 다음 깨끗한 모래를 편다. 지역별특성에 따라 모래 대신 석비레를 쓸수 있다.

영양단지를 리용하여 나무모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블로크를 깔아주어 영양단지를 일정한 높이로 띄워놓는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일정한 높이에 비닐박막을 펴서 필요한 온도를 보장해주는것이 좋다. 온도가 높고 해비침률이 높을 때에는 이동식으로 해가림을 해주면 나무모생육에 유리하다.

원형재배장에서 나무모키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삽목한 초기에는 분무장치를 1바퀴 돌리고 2분간 정지하며 며칠 지나서부터는 1바퀴 돌리고 5분간 정지한다. 뿌리가 내린 다음에는 1바퀴 돌리고 30분 정지한다.

나무모를 키워낸 다음에는 재배장소독을 잘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성 장 용 철

전국의 본보기가 될 신심드높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자기가 사는 고향산천을 전국의 본보기가 되게 꾸릴 애국의 한마음으로 끓고있다.

수림화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덕천시가 봄철나무심기시작을 잘 뗐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다음해 봄철까지 많은 나무를 심어 수림화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드높다. 시의 책임일군들과 산림부문 일군들이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한 작전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시산림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안고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현지를 밟아보면서 수종별적지선정을 바로 하였다. 그리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면서 나무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지난 기간 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검증된 영양액을 충분히 마련하여 나무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후대들에게 황금산, 보물산을 물려주자!》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겨안고 나무 한그루한그루를 정성껏 심고있다. 그들은 지난해 가을에 파놓은 나무구뎅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고있다. 시산림경영소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를 기술적으로 심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있다.

산림조성사업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될 결의밑에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들의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나무심기성과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남포시 천리마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여러 강하천들을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정리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지난해 대동강호안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몇달동안에 돌입히기, 호안림조성 등 10여km구간에 30여만㎡의 면적을 정리하고 문화휴식터를 꾸려야 하는 2단계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 높은 목표를 세웠다. 구역일군들이 호안림조성에 필요한 나무와 공사에 요구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현지로 달려갔다.

중소하천정리전투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구역에서는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강하천들을 정리하기 위한 바닥파기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모든 강을 락원의 강, 보배강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사장에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보름동안에 강바닥파기를 전부 끝낼 결의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강하천정리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려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날마다 그 면모가 일신되고 있다.

견고하고 문화성있는 도로를

북청군에서 도로공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여러개의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공사를 진행하여 북청―리원사이의 도로를 멋들어지게 정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수천그루의 가로수를 심고 여러개의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며 수십km구간에 달하는 도로의 로반강도를 높일 목표를 세웠다.

군안의 어디를 가나 도로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정리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고있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한 당의 뜻을 깊이 새겨안고 달려나온 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마다에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도로의 로반강도를 높이고 평탄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군일군들은 성과가 오를수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도로정리에서는 물론 구조물공사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정이 차넘치고있는 도로공사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실적이 부쩍부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일

먼저 실천해보고 요구하자

염주군 향봉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풀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염주군 향봉농장 초급당비서 정농구동무는 관리위원회가 내세운 구운흙생산목표를 놓고 한참동안이나 따져보았다. 현실성이 적어 보이였다. 그 과제를 그대로 농업근로자들에게 줄수 없었다.

그는 관리위원회일군에게 구운흙생산목표는 며칠후 따로 토의하자고 이르고는 그날 저녁 안해와 함께 아궁안에 한바께쯔정도의 흙을 고루 펴놓고 불을 때보았다. 하루 또 하루 아침저녁으로 불을 땐 다음 흙을 꺼내보았으나 설구워졌다. 3일동안이나 불을 땐 다음에야 흙이 제대로 구워졌다. 구운흙을 저울에 달아보니 10kg은 실히 되였다. 집집마다 3일동안에 구운흙을 10kg씩은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다.

그러나 초급당일군은 서두르지 않았다. 주관적욕망만으로는 좋게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할수 없다고 본 그는 초급당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이 실천해보도록 한 다음 농업근로자들에게 과제를 주기로 하였다. 아궁의 크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3일에 한번씩 매 세대들에서 구운흙을 10kg씩은 능히 생산할수 있었다. 실천을 통하여 이런 확신을 가진 다음에야 초급당일군은 관리위원회가 매 세대들에 언제까지 얼마만 한 량의 구운흙을 생산하라는 과제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업반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에서도 이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구운흙생산을 더 늘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욕망을 앞세우며 정했던 구운흙생산과제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것으로 전환되게 되였으며 농업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신심있게 내세운 과제를 실천해나가게 되였다.

거름원천을 더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 때에도 그랬다.

관리위원장 백화순동무는 몇해동안 묵어있는 늪바닥을 파내면 적지 않은 량의 거름을 보충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급당일군은 《사람들에게 개바닥흙을 파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삽을 들고 관리위원장, 기사장과 함께 늪으로 나갔다.

한평에서 얼마만 한 량의 개바닥흙이 나오는가를 파내보니 로력타산도 서고 운반수단문제도 계산해볼수 있었으며 개바닥흙의 총량이 2 000t정도 된다는 수자도 쥐게 되였다. 기사장 한치범동무는 개바닥흙의 성분함량을 따져보고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분석표에 기초하여 그것을 과학적으로 포전에 낼수 있는 작전도 세우게 되였다.

이렇게 한 후에야 일군들은 개바닥흙을 파내는 전투를 조직하였다.

농업근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일군들이 먼저 실천해보면서 정확히 타산하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고있기에 이 농장에서는 모든 농사일이 계획한대로 착착 잘되여나가고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일군들처럼 하나의 사업을 조직해도 실천을 앞세우며 요구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마련이다.

본사기자 리 종 석

그들이 찾은 현대화의 원리

고산군당위원회 사업에서

고산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수준이 대단히 높다.

기초식품공장, 화학일용품공장, 고산구멍탄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이 현대화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종이생산협동조합, 가구생산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단위들의 현대화수준도 높다. 이 모든 일을 불과 한두해사이에 군자체의 힘으로 해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비결을 우리는 그 어떤 과학기술의 원리에서 찾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두해전 군당책임비서 김만수동무는 여러날동안 시간을 내여 군급기관과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을 만나본적이 있었다. 경공업현대화와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한두개 대상이 아니라 군의 전반적공장들의 현대화를 단 몇해사이에 실현하자!

군당책임일군은 이런 결심을 내비치며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될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보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군이 더 많았다. 현대화의 경험과 토대, 자재 등이 부족하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일부 일군들은 군의 실정에서는 현대화의 높은 목표실현이 아직 이르다고 하였으며 어떤 일군은 자체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일군들이 이미 마련된 경공업의 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현존생산능력으로 소비품생산계획만 수행해도 성과라고 하였다.

순간 책임일군은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했다.

현대화의 목표가 높고 인재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해제낄 담당자, 사람들의 사상관점이 바로서지 못하면 비약의 봉우리, 최첨단의 봉우리에 빨리 올라설수 없다는것이였다.

사실 군당책임일군이 만나본 사람들속에는 작전가, 실력가, 책략가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기간 이들이 해놓은 일도 얼마인지 모른다. 하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뒤떨어진 사고관점.

현대화에 앞서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업이 바로 그것이였다.

그렇다고 책임일군은 억지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는 생각지 않았다. 옳은 방법론이 필요했다.

군당위원회는 현대화의 실천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이 사업에서 당일군들부터 모범을 보이게 하였다. 과학기술에 밝은 일군들을 공장들에 파견하여 그들이 단위사업지도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게 한것이 그 한 실례이다.

군당위원회는 군과학기술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담당지도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부터 힘있게 내밀었다. 이에 따라 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다.

최첨단돌파전의 시대인 오늘 단위사업지도는 마땅히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할 때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참신한 지도로 될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당일군들은 학습도 전투로 여기고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한편 첫 단계로 선정된 여러개의 현대화대상들에 나가 설비들의 기술상태, 기능공들의 준비상태 등도 깊이 료해하면서 현장경험도 쌓았다.

이렇듯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투쟁한 보람이 있어 짧은 기간에 그들의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다. 어떤 때는 기술일군들까지도 탄복할 정도로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실력전의 제1번수가 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알려주고 그들의 눈도 틔워주면서 현대화목표수행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현대화대상으로 선정된 단위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이어 단위의 기술자, 로동자들도 분연히 일떠섰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 군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높아지는 속에 일부 사람들이 신비롭게만 여기고있던 미지의 세계가 하나하나 점령되고 현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눈을 번쩍 뜬것은 군급기관과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이였다. 최첨단돌파전이 벌어지고있는 전투현장들에 나가 비약하는 현실을 보았던것이다. 그들은 현존생산능력만 보고 생산계획수행에 매달리려고 하였던 자기들의 생각이 짧았다는것을 통절히 깨닫게 되였다. 현대화에 림하는 일군들의 낡은 견해와 관점은 곧 창조의 관점으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관점이 달라지면 목표도 높아지기마련이다.

군적으로 현대화의 전망목표와 단계별목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였고 전반적범위에서 단 몇해사이에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와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군자체의 과학기술력량과 기능공후비도 그쯘히 자랐다. 이렇게 되여 군이 계획한대로 불과 한두해사이에 현대화의 높은 목표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문제, 그 실현을 위한 방법문제의 해결, 이것이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에 앞서 먼저 풀어나간 이곳 군당위원회의 당사업의 원리, 현대화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전 경 서

어랑천2호발전소건설 마감단계

어랑천2호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올해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를 가슴깊이 새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건설자들은 도중취수언제공사와 조압수조, 방수로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물길굴과 발전기실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와 도수산관리국중대 돌격대원들은 수십m의 붕락개소들에서 버력처리와 굴확장, 피복공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고있다.

11호, 12호갱공사를 맡은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와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 돌격대원들은 앞선 타입방법과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고 공사속도를 높여 굴확장공사와 콩크리트치기과제를 거의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기령광산중대, 경성군중대 돌격대원들은 철관로뒤채움콩크리트타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면서 공법의 요구를 지켜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도청년돌격대려단 포항구역, 청암구역, 경원군, 어랑군, 부령군중대를 비롯한 여러 중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발전기실과 종업원들의 살림집건설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건설자들은 발전기실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도 많이 심고있다.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발전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들여오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갱막장의 대형화를 실현함으로써 광물생산을 부쩍 늘여나가고있다.
―룡양광산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대고조전투장들에 차넘치는 혁명적기상과 열정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모습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벌써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다.

금야강발전소건설장에 발전설비들을 넘겨주고 설비조립작업까지 도와준 후에야 기업소를 향해 떠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 직장장 김봉호동무는 며칠만에 대안땅에 들어선 몸이지만 집으로가 아니라 곧바로 현장으로 갔다.

그의 손에는 발전소건설장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로부터 받은 감사편지뭉테기가 들려있었다. 이제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할 직장종업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어리였다.

오늘도 직장종업원들은 각지의 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낼 설비들을 생산하느라 전투를 벌리고있을것이였다.

그가 드넓은 현장에 들어서니 직장에서는 희천2호발전소건설장에 보낼 고정자기계틀완성조립전투가 다그쳐지고있었다.

현장의 앙양된 분위기를 호흡하는 직장장의 눈에 백발의 로당원의 모습이 반갑게 안겨들었다.

공훈기계제작공 리인해아바이였다. 년로보장을 받고 한달도 못되여 다시 일터로 달려나온 로당원, 당의 믿음을 받아안은 내가 어찌 나이가 들었다고 제집 아래목에 한가하게 앉아있을수 있는가고, 생의 마무리를 우리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관철하는 발전설비조립전투장에서 빛내이겠다고 말하면서 젊은 조립공들을 도와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불같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직장장에게도 늘 힘을 주군 하였다.

《아바이도 참, 그만큼 쉬염쉬염 일하시라는데…》

직장장의 말에 리인해아바이는 《젊은 축들이 귀찮해주기를 내가 현장에 있어야 직장장이 마음을 놓는다고 하던데.》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사실 그랬다. 이름난 기능공인 리인해아바이가 다시 일터로 나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의 두손을 놓지 못한 사람도 김봉호동무였고 신입로동자들의 기능을 하루가 다르게 높여주는 리인해아바이가 반나절만 보이지 않아도 밥술을 제대로 들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리인해아바이가 방금 서있던 곳을 보니 거기서는 리정철, 김용성동무들이 일하고있었다. 그들은 20대, 30대의 젊은 용접공들이였지만 용접기술은 다른 직장의 고급용접공들도 왔다가 혀를 찰 정도로 높았다. 거기에도 리인해아바이의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들끓는 현장을 한번 돌아본 후 김봉호동무는 두팔을 걷어붙이고 한창 조립중인 한 대상설비에 달라붙었다. 힘차게 일손을 놀리니 먼길을 온 피곤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마에 내돋은 땀을 훔치는 그의 눈앞에 미더운 모습들이 안겨왔다. 현장을 분주히 오가는 직관원의 모습도 보였다. 늘 맡은 일을 두뭄, 세뭄 해제끼면서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부지런히 속보를 쓰며 어떤 때는 입술까지 부르터 다니는 직관원이였다. 그가 푸념삼아 하던 말이 떠올랐다.

《직장장동지, 현장속보판을 더 늘여야지 이거야 어디 새 소식을 다 담을수가 있습니까.》

출장을 떠나는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하는 말이 귀맛좋아서 그때 김봉호동무는 그저 허허 웃고 떠났댔는데 돌아와보니 그새 현장속보판이 늘어났고 그것도 모자라 직관원은 직장의 곳곳에 속보를 내다붙이느라 여기저기 뛰여다니고있었다.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조립작업에 효과적인 절단지구와 장입지구를 창안도입하여 조립기일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이룩한 조립공 김인철, 정두섭동무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직장장은 필요한 지구공구들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면서 설비조립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는 종업원들을 얼싸안고싶었다.

그의 눈앞으로는 올해에도 우리 직장이 기업소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자고 하면서 설비조립에 필요한 새로운 수십가지의 지구장비들을 애써 마련해가지고나와 남들이 알지 못하게 슬그머니 현장공구함안에 넣던 기특한 조립공들의 모습도, 작업장에 누구나 볼수 있게 지도를 큼직하게 내다붙이고 거기에 우리가 설비들을 보내준 대상들은 붉은별로 표시해놓자고, 그래서 우리 설비가 가있는 곳을 알고 또 보내주어야 할 곳을 늘 생각하며 일하자고 뜨겁게 말하던 종업원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직장종업원가족들이 떠들썩하며 현장에 들어서서야 직장장은 일손을 놓고 허리를 폈다. 가족들이 또 지원사업을 나온것이였다.

이때라고 생각한 직장장은 지원물자를 넘겨주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종업원들에게 발전소건설장에서 가지고온 감사편지들을 나누어주었다. 대안로동계급에게 보내는 발전소건설자들의 감사와 격려의 편지들을 읽으며 종업원들은 긍지와 보람에 넘치였다. 서너통의 편지를 단숨에 읽고난 리인해아바이는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섰다.

《또 일을 하세.》

모두가 그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장이 좁다하게 들어찬 조립품들에 힘있게 쓴 이런 글발들이 안겨왔다.

《희천》, 《홍남》, 《2.8비날론》, 《례성강》, 《검덕》, 《무산》…

그 글발들은 마치도 대안의 로동계급을 지켜보는 조국의 눈빛같았다. 하루라도 더 빨리 부강조국건설의 일터마다에 설비들을 보내라고 부르는 시대의 목소리같았다.

설비조립전투장은 더욱 끓어번지였다. 온 나라에 울려퍼질 강성대국승리의 만세소리를 대안에서부터 울릴 의지를 안고.

본사기자 정성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원산봉화피복공장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질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과 복무정신, 일본새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동배낭, 아동잠바, 학생체육모자, 꽃장식가방…

제품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여 미처 다 셀수 없을 정도였다. 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든 제품이 하나와 같이 맵시있고 쓸모있었다. 놀라운것은 그것이 다 기본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갖가지 자투리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이였다.

우리는 원산봉화피복공장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들을 다시 눈여겨보았다. 그러는 우리에게 지배인 김명숙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2월, 공장일군들은 초급당비서의 사무실책상우에 놓인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소비품들은 재단작업반원들이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만든것이였다.

《정말 머리만 쓰면 공장에 흔한 부산물을 가지고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이러며 일군들은 신심에 넘쳐하였다.

공장에서 모든것을 인민생활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기본지표제품생산을 다그치는 한편 부산물을 통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 목표를 내건 때에 초급당비서 최건동무가 재단작업반을 불러일으켜 훌륭한 인민소비품을 만들게 하였던것이다.

재단작업반을 본받아 부산물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모두가 부산물을 가지고 한가지 소비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나의 쪼박천, 한오리의 실을 놓고도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수 있겠는가 모두가 사색하고 또 사색하였다.

그 나날에 생긴 일화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퇴근길에 나섰던 한 종업원이 새 아동옷형태가 떠올라 수첩을 펼쳐들고 연필을 달리느라 집을 한참이나 지나쳤다는 이야기며 어린이꽃치마 하나를 놓고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심리에 맞게 만드느라 한 종업원이 몇번이나 다시 가공하였다는 이야기…

자기들의 사색과 탐구, 열정이 깃든 인민소비품들을 공장적으로 진행된 합평회에 처음 내놓았을 때 종업원들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합평회를 통하여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것이라는 것을, 그러자면 모든 소비품들을 인기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렇게 외우며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였다.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더 높아졌으며 제품가공에 필요한 수십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들도 실천에 도입되여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지도국에서는 이들의 앙양된 열의가 더 높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높이이자 제품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비품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다시한번 인민생활대고조에로 부른 당의 의도를 현실로 꽃피우는 실천가가 되겠습니다.》

김명숙동무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공장마다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머리를 쓰고 달라붙을 때 더 많은 인민소비품들이 쏟아져나오고 그러면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진욱

준마처녀들의 보람

신의주방직공장 편직사직장 방직공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신의주방직공장 편직사직장은 정초부터 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해소공정으로부터 정방공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에서 누구나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는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며 분과 초를 쪼개가면서 증산돌격전을 벌렸다.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방직공들은 또 그들대로 모든 기대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하여 뛰고 또 뛰고있다. 하루일을 마치고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미풍은 날마다 수없이 꽃펴났다.

방직공들의 앙양된 기세와 열의에 의하여 매 교대, 매일 일정계획이 드팀없이 수행되고 월계획완수자들이 속속 배출되던 어느날이였다.

정방공 권영미, 백은경동무들이 년간에 3년분생산과제수행을 자기들의 올해전투목표로 대담하게 내세웠다.

그들은 1.4분기계획도 남먼저 수행한 혁신자들이였다. 상반년, 년간계획수행에서도 공장적으로 손꼽히는 선구자들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대단한 준마속도인데 또다시 더 높은 목표로 치달아오르겠단 말이지?!

놀람과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일군들은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혁신자정방공들이 다르긴 달라.》하고 방직공들도 감탄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려 하지 않았다. 권영미, 백은경동무들의 결심이 온 직장에 전해진 다음날 권사공들인 채향순, 승은애동무가 올해에 3년분생산과제를 수행할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뒤를 이어 이번에는 최명금, 김성심, 김은희동무들을 비롯한 10여명의 방직공들이 년간에 2년분 혹은 3년분생산과제를 수행하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지난 3월초 권사공 채향순동무가 상반년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방직공들은 시간마다 혁신의 새 기록을 세워나갔다.

휴식도 해야지 아무리 젊은 몸이라 해도 견디여내겠는가고 일군들이 권고도 하고 추궁도 하며 사정도 해보았으나 일욕심이 강한 방직공들은 막무가내였다.

《기대들을 만가동시켜야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고 높이 세운 올해전투목표를 점령할수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약속이나 한듯 이렇게 한목소리로 웨치다싶이 하는 방직공들에게 직장일군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드넓은 현장에 줄지어 들어찬 은빛색의 현대적인 기대들, 거기에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방직공장들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의 그 은정을 가슴에 안고 장성호, 김성일, 김성호동무를 비롯한 직장일군들과 방직공들은 모든 기대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교대당 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기대마다, 교대마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 방직공들의 자랑스럽고 긍지높은 목소리들이 울리고 또 울리였다.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며 날마다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하는 신의주방직공장 편직사직장, 오늘도 이곳에서는 준마가 끊임없이 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치곤

가정의 기쁨

대동강구역 동문1동 박명철동무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보내주게 된 기쁨이 얼굴마다 한껏 어리였다.

자기자신이나 가정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싶은 드높은 애국의 숨결을 어찌 박명철동무의 한 가정에서만 느낄수 있으랴.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우리 인민모두가 걷는 애국의 길, 보답의 길, 그것은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화폭인것이다.

글 및 사진 김진명

고향땅의 참된 주인

평강군 복계협동농장 제4작업반 반장 김창식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삼태성도 기운 지난 2월 어느날 밤이였다. 복계마을로 향한 산길로 등에 묵직한 짐을 진 사람이 전지불을 켜들고 밤길을 걷고있었다.

복계협동농장 제4작업반 반장 김창식동무였다. 온몸이 땀투성이였건만 그의 얼굴에는 시종 웃음이 가셔질줄 몰랐다. 수백리 떨어진 어느 한 고장에 가서 생산성이 높은 종자물고기들을 가지고오는 길이였다.

산골마을에 물고기떼가 욱실거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겠다던 그곳 사람들의 말이 되새겨져 밤길도 즐겁게만 여겨졌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김창식동무는 작업반의 한 농장원의 집에 들린적이 있었다. 그날은 그 집 아들이 군사복무를 잘하여 표창휴가를 받고 집에 도착한 날이였다. 제대군인인 김창식동무에게 있어서 고향땅의 기둥감들로 성장하는 청년들과 마주앉아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에 대하여, 고향의 래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때는 류달리 즐거웠지만 그날만은 마음이 무거웠다.

농장원의 집을 나서 시내물소리가 소연한 밤길을 걷는 그의 눈앞에는 아들때문에 10리가 넘는 읍마을에 가서 물고기를 가지고오던 주부의 모습이 계속 얼른거리였다.

(내가 왜 진작 양어사업에 품을 넣지 못했을가.)

사실 그는 작업반장으로 일을 시작한 후 몇해사이에 고향땅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작업반의 모든 포전들이 옥토로 걸구어졌고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알곡생산에서 해마다 성과를 거두었다. 작업반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도 멋들어지게 지어놓았고 덩지큰 집짐승우리들과 태양열온실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그러나 아직 양어는 하지 못하고있었다.

김창식동무는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음을 새롭게 깨달았다.

(바다 먼 이 산촌에도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자.)

그때부터 그는 짬시간을 리용하여 양어지식을 넓혀나갔다. 그의 손에는 늘 양어와 관련한 도서들이 묻어다녔다.

한편 그는 작업반원들을 양어장건설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작업반에서는 양어장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게 되였고 인차 그 덕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창식동무는 그것으로 성차하지 않았다. 올해에 그는 양어장능력을 배로 늘일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년초부터 양어장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리였으며 양어에서 좋은 경험을 쌓은 단위들을 찾아 먼길을 수없이 오갔다.

그가 늘 가지고다니는 수첩에는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게 양어를 본때있게 할수 있는 방안들이 가득 적혀졌다. 농장에서 수백리 떨어진 먼 고장에 열홀이 멀다하게 찾아와 양어경험과 양어방법들을 진지하게 배우는 김창식동무에게 그 고장일군들은 종자물고기들도 아낌없이 주었다. …

등에 진 짐이 김창식동무의 어깨를 무겁게 파고들었다. 그럴수록 더 기쁜 그였다.

오늘은 비록 몇마리 안되는 종자물고기들을 가지고오지만 래일은 고향땅에 팔뚝같은 물고기들이 욱실거릴것이니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동구길에 들어서니 귀에 익은 소연한 시내물소리가 그를 반겨맞았다. 그는 힘차게 걸음을 옮기였다. 더 좋은 래일을 향하여.

본사기자 리경일

우리 민족의 자랑 거북선, 슬기론 민족의 긍지를 한껏 느끼는 참관자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혁명의 노래 높이 부르며

신천군 원암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에서 노래보급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공동사설관철에 떨쳐나선 농장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초급일군들은 아침독보시간과 작업휴식참에 농장원들에게 《승리의 길》, 《곧바로》, 《신심드높이 가리라》 등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보급하고 거기에 담겨진 사상과 뜻을 해설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작업반에서는 높아가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언제나 일터가 들썩이게 하고있다. 혁명적인 노래소리와 더불어 작업실적이 부쩍 올라가고 선군시대 농민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농장원들의 열의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로농통신원 송인남

조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2돐에 즈음하여 왈레리 쑤히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룡남무역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문재철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드미뜨리 아나똘리예비치 메드베제브 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변함없이 걷는 길

락랑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교원 하정순동무

무릇 스승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을 생각하지만 그들의 스승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들입니다.》

락랑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의 관심은 여느때없이 지도교원 하정순동무에게로 모아졌다.

며칠동안 밤잠도 잊다싶이하며 지난 시기 쌓은 교육경험들도 돌이켜보고 자료들도 정력적으로 발취하는 그를 바라보며 소장 고영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은 의미심장한 눈길들을 주고받았다.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구역은 물론이고 시적으로도 실력있는 교육자로 소문난 하정순동무였지만 그에게는 새 교수방법등록증밖에 없었다. 전국적인 범위의 경연과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교육방법소론문도 집필하여 교육자로서의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군 한 그였다. 그보다 교육년한이 짧은 교원들이 여러건의 증서들을 받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그러던 그가 자료발취에 여념이 없으니 이제는 생각을 달리한줄 알고 모두가 기뻐하였다. 전국적인 교수방법연구토론회가 눈앞에 박두한 때라 그렇게 생각할만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잘못 생각하였다. 그가 평양정백소학교 교원 김성옥동무의 교수방법연구토론회준비를 위해 이처럼 며칠동안이나 큰 품을 들였다는것을 그들은 교수방법연구토론회가 끝난 후에야 알게 되였다.

전국적인 범위의 교수방법연구토론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그후 지능교육을 위한 수학과목교수에서 본보기를 창조한 자기를 부둥켜안고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하정순동무를 마주한 김성옥동무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에게 있어서 하정순동무는 교단에 선 첫날부터 교수참관도 진행하고 새로운 교수방법묘리도 깨우쳐주며 언제나 따뜻이 배워주고 이끌어준 스승이였다. 그가 짧은 기간에 이처럼 실력있는 교육자로 자랄수 있은것은 하정순동무를 떠나 생각할수 없었다.

하정순동무가 교원들을 위해 바친 진정과 헌신은 이때만이 아니였다. 김순녀, 김혜순동무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원들을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키워내기 위해 그가 남모르게 걸은 밤길은 수없이 많다.

하정순동무가 키워낸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들만도 100여명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을 놓고도 교원들에게 바친 그의 열정과 헌신의 무게를 잘 알수 있다. 교원들의 교수준비에 실효성있게 리용되는 지능계발참고서와 국어학습제강, 교재연구록, 학생들의 창발성제고에 좋은 방학숙제장들은 모두 그의 불타는 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사색이 낳은 산물이다.

락랑구역안의 소학교교원들의 자질이 시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된데도 하정순동무의 숨은 노력이 슴배여있다.

이제는 교육년한도 적지 않은데 한생을 총화하려면 무엇인가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군 한다.

《저는 교원들이 경연과 전시회들에서 1등을 하고 증서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이제 그들이 실력있는 교육자들로 자라나 수천수만의 어엿한 혁명인재들을 키워낸다고 생각하면 가슴속에는 삶의 희열이 절로 차넘칩니다.》

그는 이런 교육자였다.

하정순동무의 가슴속에는 남다르게 간직된것이 있다.

그것은 평범한 로동자의 딸에게 교육자의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고 조선인민군협주단 화술배우인 딸자식의 소박한 재능도 높이 평가해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아는 가정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그가 교육자로서의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고 원동력이였다.

하정순동무가 교단에 선지도 수십년,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이제는 60고개를 넘어섰다.

선군시대의 훌륭한 교육자들을 키우는데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며 그 어떤 영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락랑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교원 하정순동무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있다.

교육자의 영예는 번쩍이는 메달이나 증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깨끗한 량심을 바쳐 교원의 의무를 다할 때 빛난다고.

본사기자 리은남

3월 하순까지 유채농사대책

동서해안의 평지대들에서 봄유채씨뿌리기를 3월 중순까지 끝내야 한다.

봄유채는 1~3℃조건에서 싹트기 시작하며 싹터나온 후에는 −5℃정도의 낮은 온도조건에서도 얼어죽지 않으므로 땅이 녹는 차례로 씨를 뿌려야 한다. 가을에 전면갈이, 밑거름내기, 써레치기, 이랑짓기, 논에서 두둑만들기를 한 경우에는 땅겉면이 녹는 차례로 하고 1~2㎝ 두께로 흙을 덮으며 이러한 포전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땅이 녹은 다음 밭에서 전면갈이, 써레치기, 이랑짓기를 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 봄유채는 자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밑비료로 퇴비 또는 흙보산비료를 내고 질소비료를 총시비량의 60%정도 주며 나머지는 꽃망울형성시기에 주어야 한다.

가을유채밭에서 덧비료주기와 땅다져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가을유채의 되살이시기에 덧비료를 충분히 주는것이 소출에 큰 영향을 준다. 이 시기 질소비료를 총시비량의 50%정도 주어야 한다.

3월 중순과 하순에 가을유채포전에 물거름을 뿌려주는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땅이 녹으면서 토양부풀음현상에 의하여 유채포기의 뿌리가 끊어지면서 말라죽는 비률이 높아지므로 밟아주거나 다져주기를 하여야 한다.

겨울기간에 전호식구뎅이에서 키운 가을유채저장모는 구뎅이의 피복을 벗겨 예비단련을 시킨 다음 옮겨심어야 한다. 갑자기 벗기면 겨울기간에 연약해진 유채모들이 밤에 낮은 온도의 피해를 받을수 있으므로 낮에는 벗겨주고 밤에는 덮어주는 방법으로 5~7일동안 단련시켜야 한다. 모옮겨심기는 모에서 흰색의 새 뿌리가 나오기 전에 한다.

평균기온이 3~4℃정도 되는 시기에 포기사이거리가 20㎝정도 되도록 두줄로 평당 60~80포기분의 구뎅이를 파고 뿌리를 곧추 세워 젖은 흙으로 덮으면서 잘 다져주어야 한다. 옮겨심을 때 새 뿌리가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주면서 심어야 한다.

본사기자

자주적평화통일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

올해공동사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해 호소하였다. 우리 겨레는 공동사설의 호소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과감히 싸워나갈 의지에 넘쳐있다.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을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하기 위해 시종일관 투쟁해왔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민족의 강렬한 지향이며 어길수 없는 민족사적과제이다.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분렬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는 문제로서 우리 민족앞에 나선 책임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절대로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할수 없다. 력사에는 남에게 의존하여 자기의 민족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고 외세의 힘을 빌어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한 사실도 없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우리 민족은 남달리 자주성이 강하고 애국심이 높은 민족이다. 대대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민족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면서 서로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국토를 갈라놓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은 하루빨리 신성한 전국강토에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조국통일 그자체가 자주권실현을 위한 투쟁인것만큼 조국통일은 반드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세기 중반기에 자기의 침략적리익으로부터 자주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을 짓밟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함으로써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았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그때로부터 지난 수십년간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반공화국침략책동, 반통일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친미사대적인 남조선통치배들을 내세워 북남관계문제에 간섭하면서 조국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였다.

3년전 남조선에서 반통일대결을 추구하는 보수《정권》이 출현한것도 북과 남의 단합과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의 음모와 배후조종의 산물이였다. 지금도 미국은 남조선보수세력의 반통일정책을 지지하면서 그들을 우리와의 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고있다.

자주성이 없이 침략적인 외세의 간섭책동을 묵인한다면 민족의 리익이 침해당하는것은 물론이고 종당에는 민족의 운명을 망칠수 있다.

외세가 조국통일을 극력 방해하는 조건에서 우리 민족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을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실현되여서는 안된다.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서로 싸워야 할 근거가 없다. 물론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왔다. 하지만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도 무력행사의 조건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는 강요한다고 하여 받아들이는것이 아니다. 강압적방법으로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결코 없앨수 없고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 세기에 미국의 강요로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은 우리 민족은 그것이 이 땅에서 다시 터지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다. 우리의 단일한 민족성에 기초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북과 남이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싸우면 재난을 당하는것은 우리 민족이며 황페화되는것도 우리 조국강토이다. 반면에 북과 남이 싸우면 거기에서 리득을 보는것은 외세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북과 남이 통일문제를 놓고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조선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전조선반도를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 하고있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은 우리 민족의 요구일뿐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이기도 하다.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그 불길이 동북아시아지역에로 파급되게 되고 나아가서 그것은 세계적판도에로 번져질수 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에 의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을 선제공격형으로 재편성하고있으며 끊임없는 군사연습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운운하며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계속 점찍고있으며 그 무슨 《위협》과 《동맹》을 운운하며 남조선당국에 《핵확장억제력》제공을 공약하고있다.

남조선당국도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고 북침야망을 실현할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해 엄중한 반공화국도발사건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일으키는 한편 그 무슨 《급변사태》니, 《3단계통일방안》이니 하면서 무력에 의한 《제도통일》망상을 드러낸것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북침을 가상한 내외호전세력의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추호도 묵과할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망동으로서 결단코 저지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의 발현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외세를 배격하고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북남선언들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문제를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민족공동의 행동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있기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게 될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애국위업은 승리할것이다.

김 정 옥

인덕정치의 따뜻한 해빛을 그리며

인민의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남녘겨레들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남다른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네트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나는 김정일령수님의 수수한 잠바옷차림에서 인민에 대한 그이의 헌신의 절정을 본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입으신 수수한 잠바옷, 바로 거기서 위인계의 최정상에 계시는 그분의 태양상이 찬연히 비쳐오는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한다.

〈이민위천〉은 김정일령수님의 좌우명이다. 자신께서는 늘 잠바옷을 입고계시면서도 인민들에게는 더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마음쓰시며 휴식일이나 명절날에도 잠바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이처럼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어찌 친어버이라 부르며 따르지 않으랴.》

이 글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온넋이 끌리여 그이를 령도자로만이 아니라 민족의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살고싶어하는 남녘의 민심이 그대로 비껴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찾아온 제자들앞에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인류정치사에는 덕치를 근본으로 내세운 리념도 있고 덕으로 민심을 얻으려던 정치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북의 김정일령수님의 정치외에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고 명실공히 명명할수 있는 정치는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처럼 인민을 하늘로 여기는 〈이민위천〉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중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를 락으로 여기시며 민중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 김정일령수님, 참으로 그이는 민중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민중의 참다운 령수이시고 민중중심의 애민정치로 민중에게 만복을 주시는 행복의 창조자, 구세제민의 태양이시다.

하기에 이 남민중은 김정일령수님을 우러러 인덕정치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격찬해마지않는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 땅우에 인간사랑의 화원을 펼쳐주시고 강성대국의 희망찬 려명을 안아오신 김정일장군님, 그렇듯 위대한 불세출의 령도자를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끝없는 영광이며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인것이다.

그 어떤 사나운 광풍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인덕정치의 따뜻한 해발을 그리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남녘민심의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 현 철

뽀르뚜갈단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규탄

뽀르뚜갈조선친선협회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벌리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은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반공화국침략책동이다.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으며 조선식사회주의는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뽀르뚜갈조선친선협회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길에 나설것을 요구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 전개

남조선의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14일 제주도의회청사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피뢰패당의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책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당국에 추종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제주도에 살고있는 모든 민중이 힘을 합쳐 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해군기지 막아내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피뢰당국에 항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쟁《정권》을 단호히 심판할 의지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침략적성격으로 하여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는 파탄시키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는 보수당국의 책동을 규탄하며 격렬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의 보신각앞에서 호전광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벌어진 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30여개 시민단체들의 대중적투쟁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수많은 단체와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대결망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전면전, 국지전을 노린 선제공격훈련》이라고 단죄하였다.

더우기 그들은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전연일대를 행각하며 《쏠가요, 말가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고아댄 사실과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규탄하면서 그것은 《북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음모》에서 출발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쟁연습중단》, 《평화실현》이라는 웨침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집회참가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열을 올리는 전쟁《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심판운동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훈련내용에 있어서 지난 시기와는 전혀 다른 매우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불장난소동이다. 훈련에 앞서 호전광들은 그 무슨 《국지도발》을 운운하며 《F-15K》전투기와 다련장로케트로 북을 타격하는 훈련이 진행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현실적으로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번 연습에서 정밀타격으로 그 누구의 《지휘체계와 반항공망을 무력화》하고 미군증원무력과 함께 전면적인 공격작전에 나서는 훈련을 강행하였다.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근로대중의 불행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도발책동에만 미쳐날뛰는 보수당국을 단호히 심판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호소문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가 전쟁위험에 휩싸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단체는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헤아릴수 없는 참화를 초래할것이라고 하면서 전체 민중이 단결하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광신자들을 결단코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한 시민단체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평양상륙작전》으로서 《전면전연습은 북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하며 국지전연습은 북의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포함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전쟁연습책동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전쟁《정권》심판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야당들속에서도 울려나왔다. 민주로동당의 한 의원은 《이번 훈련으로 우리는 머리우에 폭탄을 이고사는 신세가 되였다.》고 개탄하면서 평화운동을 《정권》심판운동으로 이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야당세력들은 다가오는 《선거》를 전쟁《정권》심판마당으로 만들것을 결의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평화를 반대하면서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의 불길속에 종말을 고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남조선에서 산불로 큰 피해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9일 남조선각지에서 산불로 큰 피해가 났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에 번졌고 곡성군에서는 2만㎡의 산림이 재더미로 변하였다. 남조선강원도 녕월군에서도 산불로 6 000㎡의 산림이 타버렸다.

이날 하루동안 울산을 비롯하여 6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조선중앙통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망발 단죄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15일 청년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괴뢰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기만적인 망발을 단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이자가 12일 한 방송에 출연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잘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것》이라느니,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공부하기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등록금 1 000만원》,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 남조선의 교육현실과 청년실업의 상징어가 되고있는 오늘 이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이런 말을 내밷은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다 못해 몰상식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해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가는데다가 등록금으로 하여 곤난을 겪다 못해 목숨을 끊는 대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오죽 고생이 심했으면 이런 길을 택하였겠는가고 개탄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학비용돈을 받고 후에 막대한 리자와 함께 물어야 하는것으로 하여 졸업후 청년들에게 채워지는 족쇄나 다름없는 학자금대출을 내놓은것이 그 무슨 큰 공적이나 되는것처럼 광고하는것이야말로 짐승도 웃을 일이라고 론평은 조소하였다.

론평은 현 집권자가 선거때 국민앞에 한 반값등록금공약은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온데간데 없어졌으며 그것은 결국 당선을 위한 국민기만용에 불과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웃물이 흐리니 아래물도 맑을수가 없듯이 청년문제의 책임을 대학생과 청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오만성은 신통히도 현 집권자를 닮았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압박이 있는 곳에 항거가 있기마련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끝장내고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각계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지난 8일 민주로총과 산하 로조단체들은 《한나라당》청사앞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로조말살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지였다.

단체들은 쌍룡자동차, 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업주들이 경영파탄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로동자들을 해고시켰다고 단죄하였다.

특히 로동자들이 로조말살책동을 반대하여 롱성을 벌리고 지어 목숨까지 끊고있지만 《민생정치》를 표방하던 《한나라당》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25일까지 《정리해고철회 및 희생자추모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로동문제와 관련한 《국회》청문회실시, 《로사》합의리행, 해고자복직, 로동자생존권보장 등을 요구하여 적극적인 공동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민주로총산하 민주택시로조가 집회를 가지고 생존권쟁취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당국자가 《747공약》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지 3년이 되였지만 로동자들의 삶은 날로 비참해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지금 로동자들속에서는 《못살겠다. 갈아엎자.》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현 《정권》을 단호히 심판하고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이러한 의지는 얼마전 서울에서 진행된 로동운동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도 과시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폭로하였다. 특히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녀성로동자들은 일자리, 임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2중3중의 고통을 겪고있다고 까밝혔다.

참가자들은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웨치면서 임금인상과 로동조건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민주로총산하의 한 녀성단체는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녀성로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고조되는데 겁을 먹은 보수당국은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탄압하고있다. 하지만 거세찬 강물의 흐름을 막을수 없듯이 투쟁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쟁취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것이며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복 은 희

독재권력이 낳은 추문사건

최근 남조선외교관들의 각종 추문행위가 련이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자들은 현지에서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맺고 타락한 생활을 한것은 물론 출장기간을 거짓으로 늘이거나 만찬참가자수를 불구고 주택, 자동차 등의 구입서류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다 못해 지어 중대비밀까지 팔아먹었다 한다.

외교관들의 이 망신스러운 추태는 집권초기부터 실시해온 현 남조선당국의 독재정치가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온갖 기만과 권모술수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현 남조선집권자는 처음부터 사회전반에 자기의 지반을 닦고 독재체제를 수립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것이 인사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인물들이 내외여론과 실무능력에 관계없이 집권자와의 정실, 안면관계에 따라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였다.

현 집권자의 《대통령》당선에 기여한바 있는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일뿐아니라 친일경력까지 가진 현병철이 다른 경쟁자들을 제껴놓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자리를 타고앉았다.

현인택, 원세훈, 김관진과 같이 민심의 배척을 받는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도 권력의 막무가내식인사조치에 의해 통일부, 정보원, 국방부의 주요요직들에 올라앉았으며 외교관들중의 하나인 김정기 역시 《정부》구성이후 첫 공관장임명때 총령사로 등용되였다.

집권자와 동향관계에 있는자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의 요직을 차지하고는 영포회라는 사조직을 통해 저들끼리 인사문제를 좌우하며 권력을 나누어가진것과 같은 행위는 더욱 경악을 자아냈다.

인사문제에서의 독재적횡포가 얼마나 우심했으면 외교관들이 집권세력의 비호를 받고있다는데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이자들에 대한 구체적실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감독조사도 선택적으로 대충 해치우고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한 언론이 《정부는 여러 공관장을 측근인사로 임명하여 이런 사태를 증폭시켰다. 현 정부 초기부터 말썽이 끊기지 않았던 인사문제가 해외에서까지 망신을 부채질한것》이라고 평한것은 사태의 본질이 어데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조선중앙통신】

무참히 짓밟히는 녀성들

《녀성들은 녀자로 태여난것을 저주하고 남성들은 녀자로 태여나지 않은것을 감사하게 여기는것이 이 땅의 통탄할 현실이다.

…이 땅의 녀성은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이다. 녀성들은 차디찬 땅에서 숨져가고있다. …》

이것은 남조선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통탄하여 남조선녀성인권연구회 간사가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에서도 차별과 멸시, 눈물과 수난속에 몸부림치는 남조선녀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엿볼수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고있으며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긴채 굴욕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그 일부를 보기로 하자.

천대받는 인생들

남조선녀성들은 사회경제생활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전체 실업자중 62%가 녀성실업자이고 전체 녀성근로자중에서 비정규직비률은 71.3%로서 남성보다 30%나 더 많다고 한다. 남녀간 임금차이비률은 38%이며 녀성빈곤률은 59.5%로서 남성(30%)보다 거의 2배나 높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녀성들은 이겨내기 힘든 사회적 및 가정적부담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담당할수 없어 결혼후 아이를 낳지 않는 녀성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녀성들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얼마전에는 30대의 한 녀성작가가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옆집문에 도와달라는 한장의 글쪽지를 붙여놓은채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는 나이도 젊고 문학적재능까지 남달리 뛰여나 장래가 기대되던 녀인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무정한 남조선사회는 그의 재능의 씨앗을 짓밟고 생명까지 앗아갔다.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의 남녀격차지수는 134개 나라들가운데서 115번째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유린당하는 인권

녀성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래야 찾을수 없는 썩어빠진 사회풍토에서 남조선녀성들이 갈길은 돈있고 권세있는자의 《노예》로, 《상품》으로 굴러떨어지는 길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영화배우들의 처지를 보기로 하자.

남조선에서 적지 않은 녀성배우들이 성노리개, 돈벌이 도구로 리용되는 치욕을 면치 못하고있다.

최근 남조선녀성배우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자는 20.7%,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자는 11.5%나 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출연을 금지당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무려 50.7%나 되였다.

또한 인신매매군들은 녀성들을 유명한 인기배우로 만들어준다고 꾀여내여 수천US$씩 받고 팔아먹고있는데 그들 대다수가 성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가실수 없는 불안과 공포

최근 남조선녀성들속에서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발진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들을 구입하는 현상이 늘어나고있다. 그것은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상습적인 강간폭행이 성행하고있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녀성들은 마음놓고 길을 다니지 못하고있다.

부산에서 13살난 녀학생을 빈집으로 끌고가 강간한 후 살해하여 물탕크에 넣은 김길태사건과 군산에서 중학생 3명이 초등학교 녀학생을 7차례나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은 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반인민적악정속에서 남녘땅은 말그대로 녀성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히는 참혹한 녀성인권의 유린지대, 불모지로 더욱 전락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미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녀성들

몰락의 운명을 걸머진 《유일초대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세계《유일초대국》지위문제를 놓고 비평하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있다.

미국잡지 《뉴스위크》는 《미국사람들은 퍽 오래전부터 자기 나라가 항상 〈초대국〉이기때문에 세계에 적응할 필요는 없다고 믿어왔다.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버릴 때가 왔다.》라고 썼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지만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야유하는 글을 실었다. 중국의 홍콩신문 《사우스 챠이나 모닝 포스트》 등도 미국의 세계《유일초대국》시대는 끝장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론조들은 미국의 세계《유일초대국》지위가 허물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미국이 랭전종식을 선포한것은 1989년 12월이였다. 당시 미국은 《랭전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요리념이 꽃피는 새로운 세계를 세울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때부터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으로 행세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유일초대국》시대는 바야흐로 끝장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정치무대에서 미국의 특권적지위가 크게 상실당하고있는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더욱더 몰리우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유엔인권기구 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무진 애를 써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은 대다수 나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미국이 인권유린행위로 피고석에 끌려나와 심판받게 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군 하였다.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의 반꾸바봉쇄철회를 요구하는 결의가 계속 채택되고있다.

미국의 한 잡지는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 군림한 제국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자국의 의사를 통과시키는데 놀라울만치 고심하고있다.》라고 썼다. 미국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세계정치무대에서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과 처지를 되돌려세울수 없게 되였다.

세계에서 차지해온 미국의 경제적지배권도 허물어지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적지 않은 나라들의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지배권이 심히 약화되고있다. 미국의 이전 경제고문이며 국가경제연구소 소장인 마틴 펠드스타인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것으로 될수 있는 경제감퇴의 계선에 들어섰다.》라고 경고하였다.

세계적인 총생산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률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경제의 구조적모순과 불균형, 끊임없이 늘어나는 방대한 군사비 등으로 미국은 엄청난 예산적자와 대외채무에 시달리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총 4 978억 2 000만US$에 달하였다. 얼마전 미국정부는 올해 9월에 끝나는 2011회계년도에 련방예산적자가 력사상 최고를 기록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미국의 국가채무액은 12조 310억US$에 달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동안에 미국의 국가채무가 그보다 근 2배 늘어날것이라고 예고하고있다.

미국은 딸라의 힘으로 더는 남을 누를수 없게 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여러 지역과 나라들이 미국딸라대신 지역적범위의 단일화폐도입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있다.

알바성원국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쑤끄레를 무역결제화폐로 정식 리용하기로 하였다.

중동의 원유생산국들과 중국, 프랑스 등 나라들은 2018년부터 중국화폐와 유로, 페르샤만지역에서 새로 내오려고 하는 공동화폐 등으로 일종의 합성화폐를 만들어 그것으로 원유대금결제를 하기로 하였다.

세계적인 총생산액의 약 15%와 세계인구의 40%이상, 세계무역액의 약 13%를 차지하고있는 중국, 로씨야, 인디아, 브라질은 쌍무간 무역결제를 민족화폐들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이러저러한 새 화폐도입움직임은 금융, 경제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선전포고와 같은것이다.

유럽나라들도 무역,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자기들의 리익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오늘날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기둥의 하나인 딸라의 지배적지위는 허물어져가고있다.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우위권도 약화되고있다.

그것은 미국의 《반테로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군사비지출에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대량살륙무기개발과 생산에서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뒤따라오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테로전》에서 미군사력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다. 설사 미국이 동맹국들의 군사적힘을 모두 빌린다 하여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있다. 그것은 미강점군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대규모무력과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한 각종 대량살륙무기까지 동원하고있으나 이 나라들의 반미세력의 항전을 제압하지 못하고 숱한 사상자만을 내고있는데서 명백히 알수 있다. 미강점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치, 도덕적으로도 패하고있다. 그들은 야수적인 살인만행으로 이 나라들의 인민들을 놀래우고 미국의 세계《유일초대국》지위를 과시할수 있으리라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살인만행으로도 강점국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오히려 강점국인민들이 반미감정과 투쟁의지를 더욱 굳히게 하였을뿐이다.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몰락의 운명을 걸머지고있다는것은 다름아닌 《반테로전》에서의 미강점군의 참패로 하여 미국의 신조처럼 되고있던 무기만능주의가 파산되고있다는것, 미강점군이 정치, 도덕적으로 패함으로써 미제의 부패성과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세계인민들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고립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지도자》도 《유일초대국》도 《국제재판관》도 아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출판물은 미국무장관이 실제적으로 미국이 이미 《천하를 다스릴수 없다.》는데 대해 인정하였다고 전하면서 미국은 일찌감치 《아메리카제국의 꿈》에서 깨여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충고하였다.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의 낡은 꿈에서 깨여나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더욱 큰 고립과 배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김 종 손

길이 빛날 《지원》의 사상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13일부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원〉의 사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원》, 이것은 일찌기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이다.

1910년대 후반기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세계적으로 아직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문제가 성숙되지 않고있었으며 독립운동의 방식과 방법도 개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속에는 큰 나라의 힘을 빌어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때 독립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신분이 바로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와 싸워이겨야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지니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의지를 담아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동지들을 찾아 핵심으로 육성하고 군중적지반을 축성하신 선생님께서는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심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이 조직의 결성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독립하려는 선생님의 견결한 반제자주사상과 그 실천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결실이였다.

신문은 조선국민회가 국내 각지는 물론 국외에까지 확대된데 대하여, 선생님께서 조선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지원》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상세히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원》의 사상은 오늘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대중의 운명과 자주위업의 전도는 총대에 의하여 좌우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앞세워야 한다는 투철한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면서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오늘 조선에는 끝없이 휘황한 미래, 선군혁명위업의 창창한 전도가 펼쳐져있다.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지원》의 사상은 길이 빛날것이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중국에서

○ 중국에서 지난 5년동안 농촌빈곤자수가 3 743만명 감소되였다. 이 기간 나라에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주민들속에서 새로운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 중국 운남성에서 지난 5년동안 1만 3 900㎢의 면적에서 물에 의한 토지류실이 방지되였다. 이 기간 성에서는 산림조성사업과 강하천정리공사를 적극 벌리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해 장경가스밭으로부터 후허하오터까지의 천연가스수송관부설공사를 추진시키고있다. 이 수송관의 길이는 492㎞에 달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년간 60억㎥의 천연가스를 수송할수 있게 된다.

꾸바에서

꾸바에서 4일 소아마비예방접종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이번 예방접종깜빠니야기간 전국적으로 50만 7 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접종을 받게 된다. 1단계 접종깜빠니야기간에는 37만 2 700여명의 어린이들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필리핀에서

필리핀정부가 에네르기안전을 위한 조치로 최근 에네르기비상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에네르기성, 재정성, 무역 및 공업성 등 정부관련기관 성원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나라에서 석유와 기타 에네르기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족근위대가 7일 볼리바르주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1t 170㎏의 코카인이 압수되고 5명의 마약관련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안조아떼기주에서 9일 417㎏의 코카인이 적발, 압수되였다.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9.5t의 각종 마약이 몰수되였다.

나이제리아에서

나이제리아에서 현재 하루평균 240만bbl의 원유를 생산하고있다. 1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군사연습소동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씨야신문 론평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10호가 《조선을 반대하는 위험한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정세를 다시금 전쟁발발의 국면에로 몰아가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에 전면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화선이다.

사태는 남조선괴뢰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오로지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있는 원인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반통일적인 정책을 고집하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기때문이다.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고 압살하기 위한 핵시험전쟁으로서 거기에는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대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선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소동에 강경하게 대응할것이다.

대규모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압력을 가해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합동군사연습으로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미국의 그릇된 태도를 비난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5일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태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데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지만 그 방지를 위한 사업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공업 및 소비구조를 국제적기준에 맞추어 정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반마약투쟁을 강화할 립장 표명

캄보쟈수상 훈 센이 14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마약반대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려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지난 시기 반마약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마약밀매를 비롯한 범죄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적발, 처벌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마약반대투쟁에서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이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정착촌확장책동 규탄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 사에브 에레카트가 13일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12일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수백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는것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파피하는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그 조치를 철회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발광2극소자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최근 온실의 보조광원으로 리용할수 있는 발광2극소자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소자는 빛의 파장이 660nm로서 식물의 빛합성에 아주 적합하며 전통적인 온실보조광원에 비해 에네르기소비량이 적다.

【조선중앙통신】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간판밑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다.

14일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서 미군의 무인기공격으로 4명의 무고한 파키스탄인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체포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14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시와 헤브론시에 쳐들어가 폭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또 14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실업자 증대, 일자리 축감

미로동성은 10일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5일까지의 지난 한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9만 7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2만 6 000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한편 카나다통계국은 11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월에 전국적으로 2만 3 8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나라의 실업률은 7.8%에 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강점자의 울상

최근 이스라엘이 울상이 되였다. 한 서방동맹국이 자국주재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의 대표부를 공식적인 외교대표부로 승격시켰기때문이다. 이 조치는 사실상 팔레스티나를 독립국가로 시인한것으로 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독립국가를 인정하는 국제적대문에 빗장을 지르려고 다리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동분서주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지난 수개월사이에만도 9개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팔레스티나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였다. 그런가하면 일부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자기 나라들에 있는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의 대표부들에 외교대표부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고있으니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속이 상하고 골머리가 아플것이다. 그야말로 종처가 소금절임을 당하였을 때의 심정일것이다.

그러고보면 강점한 팔레스티나땅의 영구지배를 추구하고있는 이스라엘이 울상이 될만도 하다.

흐르는 강물은 손바닥으로 막지 못하는 법이다. 이스라엘이 되게 안달이 나 국제사회의 팔레스티나독립국가인정흐름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공연한 노릇이다.

조 성 철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 세계상식 ‖

력사상 손실이 가장 큰 사고들

려객선 《타이태니크》호침몰사고

손실액: 1억 5 000만US$

려객선 《타이태니크》호의 침몰사고는 세계에 잘 알려져있다. 첫 항해에 나선 《타이태니크》호는 얼음산과 부딪쳐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1 500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체르노빌에서 방사능루출사고

손실액: 2 000억US$

1986년 4월 26일 당시 쏘련의 가맹공화국인 우크라이나북부에 위치하고있는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루출사고가 일어났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사고들중 손실이 가장 큰것으로 하여 평화시기에 인류가 겪은 최대의 사회경제적재난으로 불리운다. 이 사고로 하여 우크라이나령토의 50%가 오염되고 1 700만명이 방사능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도합 12만 5 000명이 사망하고 오염제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에 2 000억US$가 지출되였다. 발전소의 강철보호층을 다시 만드는데만도 20억US$가 들었다. 사고원인은 발전소의 조종성원들이 조작규정과 안전조건을 무시한데 있었다고 한다.

우주비행선 《콜럼비아》호폭발사고

손실액: 130억US$

우주비행선 《콜럼비아》호는 미국가항공우주국이 제작한 우주비행선가운데서 우주비행에 그중 적합하다고 한 첫 비행기구였다. 2003년 2월 1일 우주비행을 마치고 대기층에 진입하던 《콜럼비아》호는 16일전의 발사시 날개에 생긴 자그마한 구멍때문에 산산쪼각이 났다.

유조선 《프레스티지》호원유류출사고

손실액: 120억US$

2002년 11월 13일 7만 7 000t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 《프레스티지》호가 에스빠냐의 갈리씨아부근 해역을 항해하던중 폭풍우를 만났다. 이로 인해 12개의 탕크중 한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선장은 유조선이 침몰되는것을 우려하여 에스빠냐에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에스빠냐는 속히 자기 해안을 떠나라고 선장에게 명령하였다. 선장은 다시 프랑스와 뽀르뚜갈에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들도 방관시하면서 배가 자기들의 해안에 들어오는것을 꺼려하였다.

점점 더 강해지는 폭풍우로 하여 결국 유조선은 두동강이 나고 배에 실었던 원유가 몽땅 바다에 류출되였다.

우주비행선 《챌린져》호폭발사고

손실액: 55억US$

1986년 1월 28일 우주비행선 《챌린져》호는 날아오른지 불과 73초만에 폭발을 일으키면서 추락하였다. 추락원인은 아주 작은 《O》형 밀페고리에 있었다. 1986—1987년에 사고조사 및 오유시정, 파손된 설비교체에 만도 4억 5 000만US$가 들었다.

《B—2》스텔스폭격기추락사고

손실액: 14억US$

2008년 2월 23일 괌도에 있는 기지에서 리륙한 《B—2》스텔스폭격기가 얼마 날지 못하고 추락하였다.

이 폭격기는 미국이 제작한 21대의 《B—2》스텔스폭격기중 하나였다. 이 폭격기 추락사고는 손실이 가장 큰 비행기사고였다. 조사한데 의하면 사고원인은 습기로 인해 폭격기조종체계의 수값들이 변한데 있었다.

도이췰란드에서 유조차사고

손실액: 3억 5 800만US$

2004년 8월 26일 도이췰란드의 어느 한 다리우에서 승용차와 3만 2 000L의 연유를 실은 유조차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약 28m 아래에 있는 고속도로우에 떨어진 유조차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화재를 일으키면서 다리의 힘받이구조물을 파피하였다.

다리를 림시로 보수하는데만도 4 000만US$, 재건하는데 3억 1 800만US$가 들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일본에서 대규모방사능방출위기 조성, 세계적으로 우려 증대

일본에서 강한 지진과 해일의 후과로 원자로들의 폭발과 화재가 계속되여 대규모방사능방출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련이은 폭발과 화재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1호, 2호, 3호, 4호원자로들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로심용해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격납용기파괴에로 이어지고있다.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새여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격납용기가 파괴되는 경우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게 된다고 한다.

현재 이 원자력발전소에서 1호, 2호, 3호원자로들의 외벽은 모두 폭발한 상태이며 2호와 3호원자로 격납용기들이 파손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일본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직승기를 리용하여 3호원자로로부터 30㎞ 떨어진 곳에서 찍은 촬영자료에서 하얀 연기구름이 보인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 원자로격납용기의 일부가 파손되였을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도꾜전력회사의 대변인은 4호원자로의 페핵연료봉이 핵분렬련쇄반응을 일으킬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17일 정부는 물대포와 직승기를 리용하여 3호와 4호원자로들에 랭각수를 투하하여 파열되고있는 페핵연료봉을 랭각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렸지만 실패하고말았다고 NHK방송은 보도하였다.

또한 지진발생당시 가동하지 않고 점검중에 있던 5호와 6호원자로들에서도 랭각계통의 고장으로 물온도가 계속 올라가고있다.

17일 5호와 6호원자로들에서 물온도가 16일에 비해 각각 5℃, 4℃ 높아져 63℃, 60℃에 달하였다.

물온도가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면 5호, 6호원자로들도 다른 원자로들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사민당 당수는 수상에게 다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킬것을 요구해나섰으며 후생로동성은 식료품의 방사능오염에 대처한 대책을 세울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통지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우려가 증대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방사능루출사태에 직면한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있다고 말하였다.

타이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나라들에 이어 미국까지 일본식료품들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진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일본경찰청은 지진에 의한 사망자수가 18일 11시 30분현재 6 405명으로 늘어나고 행방불명자수는 1만 259명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론들에 의하면 2만여명이 여전히 잔해에 묻혀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피난민들에 대한 식량과 먹는물지원이 어려워지고있는 속에 피해지역에 때아닌 폭설이 내려 피난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있다.

항공《자위대》의 마쯔시마기지에서는 해일로 기지전체가 물에 잠기고 이곳에 있던 군용기 28대가 모두 떠내려가거나 못쓰게 되였다.

일본의 한 대학교수는 분석자료를 인용하여 이번 대지진으로 나라의 넓은 범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진원과 가까운 미야기현 오시까반도에서 륙지가 동쪽으로 5.2m 움직이고 1.1m 내려앉았으며 이와데현 해안지역에서는 륙지가 동쪽으로 2~3m 옮겨갔다. 도꾜에서는 13㎝, 교또북부지역에서는 6㎝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1105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